

해설지

[논리의 감각] 테스트용 2회

1	2	3	4	5	6
(1)	(2)	(5)	(3)	(2)	(4)

저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 경찰대, 한예종 모두 1회 지문들과 다르게 고등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5, 6번 문제의 경우 글을 정상적으로 읽는다면 틀리지 않을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점차 출제를 이어나가면서 난이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갈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설을 할 차례이지요.

[1-2] : 2014년 대구부산연합학력평가 국어B형 기출문제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경제 제시문을 읽는 순간 머리가 굳어버리는 현상을 겪곤 합니다. 물론 사회탐구로 경제를 응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이해력이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경제 지문은 통상적으로 아주 약간 요구되는 수리적인 능력,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례에 대한 적용이 적절히 배합되면서 가히 물리이론 지문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경제의 경우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간단한 논리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산출된 '공식'에 맞춰서 지문을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주아주 기초적인, 공식까지 다 가르쳐주는 **중학생용** 수리논술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문에서 알아야 할 개념 묶음은 0가지가 있습니다.

(1) 수요곡선의 개념.

통상적으로 기초 상식의 범주에 드는 개념이지요. 혹여나 모른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구절을 붙잡고 문제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의 개념.

이 3가지 개념을 헛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대체효과는 '다른 재화와 비교해서' 값이 싸진 것, 소득효과는 '그냥' 값이 싸져서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가격효과예요.

(3) 정상재와 열등재의 개념

정상재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고, 열등재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 문제를 푸시면 안되고... 마치

막 문단까지 꼭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열등재의 경우에도 수요의 법칙은 작용하게 됩니다.

(4)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의 방향 일치 여부에 따른 양(+)과 음(-)의 표기

가격이 올라가면->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러면 양(+)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수요량이 줄어든다. 이러면 음(-)입니다.

열등재의 소득효과만 양(+)이고, 열등재의 대체효과, 정상재의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는 모두 음(-)입니다. 음(-)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요의 법칙을 따를 수 있잖아요.

말이 화려하지만 별 것 아닌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각 선지를 차분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에 따른 해답 분석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 글자만 잘 보면 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 소득효과에 대한 이야기군!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어떨지? -> 양(+)의 방향이네? -> 소득효과가 '증가'하진 않군!

(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은 정상재에서 (-)(-), 열등재에서 (-)(+)입니다.

(3)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 대체효과죠. 열등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열등재에서도 대체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함을~'.

열등재와 정상재 모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둘 다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5) 다시 글자를 잘 보고 치환해봅시다.

가격이 고정된 상태->대체효과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 듯.

소득이 올라감->실질소득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소득효과만 유효하게 작용함.

정상재에서 소득효과는 유효하지만 열등재에서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증가폭은 정상재에서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배배 꼬인 말장난만 피한다면 80%는 먹고 들어가는 지문 유형이 바로 경제입니다.

2번 문제

선지 분석 전에. 이런 문제는 그래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프는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식한 것이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특수제작된 것은 아니에요.

(1) 가격이 내려서 수요가 많아졌네요. 이런 것을 멍뚱그려 가격효과라고 했죠.

(2) 가격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임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죠. 가격이 P1에 고정되어있다 해서 가격효과(=수요의 증가를 일으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

사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가 일어나고, 소비자 집단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면 소득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고정되어도 수요는 Q1에서 Q0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a)가 가격효과이므로 (b)와 (c) 중 각각 하나는 대체효과, 하나는 소득효과겠지요. 따라서 열등재의 경우 소득효과가 양(+)으로 표시되기에, 자연히 (b)(c)중 하나는 양(+)으로 표시됩니다.

(4) (2)와 같은 쉬운 맥락입니다. 소득이나 가격이나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와 함께 다른 변수가 움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지요.

(5) (b)와 (c)의 합, 즉 (a)가격효과는 항상 수요의 법칙을 따르고,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표시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5] : 2013년 경찰대학

경찰대 지문들은 언제나 길고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개 문제지만 받아놓고 이걸 너무 어렵겠다, 싫어서 풀곤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영역에서 장문독해가 가장 쉬운 유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지문이 장황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문 내에서 쉽게 선지에서 묻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번 지문 또한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과학철학 제시문입니다.

3번 문제

(1) 주로 쿤의 과학철학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포퍼는 잠시 등장하는 비교 대상일 뿐입니다. 둘을 끝까지 병렬시켜 비교분석하지 않습니다.

(2) 과학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간주하지만 문화 현상의 보편적 특질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3) 쿤은 과학자들이 보수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비판하는지는 본문에서 확실히 언급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붕괴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과학 공동체가 아닌 그들의 패러다임입니다.

(4) '반증을 통해 이론이 탈락한다'는 것은 쿤의 과학철학 이론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포퍼의 이론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론이 탈락된 상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존 패러다임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것임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요.

(5) 과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중심 흐름입니다.

4번 문제

(1) 쿤이 제시한 정상과학(normal science)에 대한 이야기네요.

(2) 포퍼는 한 번의 변칙 사례로도 반증된 이론이 버려지고, 그 대신 새로운 이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3) 쿤의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면 그 패러다임은 다시 정상과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찾을 것이고, 이에 걸맞지 않은 반증 사례들은 배격하려 하겠지요.

(4) 포퍼는 하나의 반증만으로도 기존의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5) 포퍼와 쿤의 모델 모두 과학 이론을 영구히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반증 사례로 무너지든, 긴 시간의 반증 절차를 통해 패러다임이 무너지든 하나의 이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두 학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를 ‘평가원 스타일’로 변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찰대 유형의 문제를 그대로 끌고 온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2015, 2016 수능을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신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을 다채롭게 괴롭히기 위한 공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대신 (ㄷ)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네요.

본문을 근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떠올려봅시다. 처음에는 한 가지 정보나 사례로는 패러다임이 없었지만, 여러 정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새로운 반례들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우세해지면서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택하게 되었지요. 간단히 스위치를 켜듯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었고, 그것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 것은 패러다임 외부의 정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선지에서 고르자면 (2)공산주의 사상에 감화되어 이념을 전향한 경우가 있겠지요.

[6] 6번 문제 :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사능 2015

윤리와 사상을 충실히 공부했을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제시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 실재론을 비교한 지문이었고, 각 사상의 골자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만 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지문에서 2개 문제를 출제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한 문제만 제대로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마저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민망하네요.

(1) 플라톤은 형이상학적 관념=이데아에 의존하여 세계와 진리를 파악하고자 했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 가능한 경험에 따라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고요.

(2) 무짜 그러니까 무속, 종교는 비가시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고, 신성한 광기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죠.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썩와 종교니까요. (본문에 암시적 이미지, 신화 등을 긍정하는 언급도 있고요) 또한 수학의 경우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논리로서만 존재하는 ‘비가시적 진실’이기에, 플라톤에게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죠. 오감-감각-실재하는 경험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4) 정말 쉽게 골라낼 수 있는 정답 선지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가시적 진실을 모방하는 것으로, 원본의 재생에 해당한다.’ 라는 말이 본문에 언급되지요. 이를 정리하면 예술=비가시적 진실의 모방입니다.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죠. 다만 혹시나 틀린 분이 있다면 ‘감각적 형태로’ 라는 말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조각이든 회화가든 음악이든 어떤 예술 작품도 그 실물 자체를 비감각적 형태로 제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장난에 낚이지 말아요.

(5) 플라톤의 철학에서, 인간의 영혼은 비가시적이지만 존재하는 이데아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체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언급조차 되어있네요.

다소 업데이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이 전에 비해서 그리 자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번에 지나치게 쓸 데 없는 말을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해설을 가볍게 줄여봤습니다.

언제나 피드백은 환영합니다. 문제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어떠한 요구사항을 주셔도 좋습니다. 쪽지든 댓글이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시 발표가 쭉쭉 진행되고 있어 많이 신경 쓰이네요. 이 글을 읽어주시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논리의 감각]